

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

이관규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머리말

인간의 특징으로 언어를 들곤 한다. 한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 준다. 우리가 우리말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가꾸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다. 학교 교육에서 국어 수업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어 수업 가운데 특히 문법 영역은 국어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고 가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들과 차이를 가진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등은 국어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응용 영역들이지만, 문법은 국어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문법 영역은 중요시되어 왔으나 그 이후에는 경시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는 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국어 교육관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국어 사용 기능 능력 신장을 지향하는 현행 6차 및 7차 교육 과정 시기에도 문법 영역의 가치는 흔들림이 없다고 본다. 왜냐 하면, 다른 영역의 능력이 올바르게 신장되기 위해서라도 1차적인 국어 문법 능력이 제대로 신장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행 각급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문법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해력과 사고력이 왕성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고등학교에서 문법 영역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초등학교에서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내용을 다루면서 문법 영역 내용이 조금씩이나마 들어가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현재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법 교육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의상 문법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는 초등학교의 문법 교육은 다루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문법 교육 현황만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학교 교육의 준거가 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속에 나타난 학교 문법 교육의 위상을 알아 보고, 다음으로 국어과 교과서에 반영된 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을,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문법 교육 및 수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¹⁾

2. 교육 과정에서의 학교 문법 교육의 위상

2.1. 교육 과정은 개별 과목의 교육에 있어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되는 것으로, 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준거가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 제시된 문법 영역의 목표를 확인해 보면, 학교 문법 교육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 교육 과정에 나타난 '언어'(문법) 영역 목표

- ㄱ. 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 ㄴ.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정확하게 사

1)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행 제6차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그리고 수업 실태이다. 참고로, 제7차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중학교는 2001년부터,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용하게 한다.

- ㄷ. 국어 과목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고, 국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과 함께 국어를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과 민족의 언어인 국어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언어(문법)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등 여섯 가지 국어과 영역 가운데 가장 내용 교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종래 학교 현장에서 문법 내용은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식의 주입식 수업이 이루어지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이 언어 사용 기능 영역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1ㄱ, ㄴ)에서 보는 것처럼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국어 지식(문법)은 궁극적으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게 … 정확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는 문법 영역을 국어 사용 기능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기초적 영역 정도로만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행 제6차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과목의 문법 영역이 ‘언어’로 명명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이에 비해 (1ㄷ) 『고등학교 문법』 과목에서는 ‘문법’이라는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법 과목에서도, 언어(국어) 자체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 목표가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과 함께 국어를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과 민족의 언어인 국어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어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는 가치관 함양이라는 목표가 추상적임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문법 과목에서도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 즉 국어 사용 기능 능력의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과정의 목표를 통해 본 문법 교육의 위상은 국어 사용 기능 영역들과 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국어)의 기초적이고 체계

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국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까지 학교 문법 교육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2.2.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과의 영역을 크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여섯으로 나누고 있다. 이를 단순히 받아들인다면, 언어(문법) 영역은 국어과에서 1/6, 즉 16.7%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여섯 영역은 모두 똑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예컨대, 문학 영역은 현대 문학, 고전 문학으로 나누어 전통적으로 매우 강조되어 왔음에 비하여, 듣기 같은 영역은 연구의 양과 질에서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교육 과정에서의 영역들, 특히 문법 영역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교육 과정에서 배당하고 있는 영역별 단위 수라고 할 수 있다.²⁾

(2)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과 각 영역의 단위 수³⁾

ㄱ. 중학교 - 국어(476)

ㄴ. 고등학교 : 공통 필수 과목 - 국어(상, 하)(10)

ㄷ. 고등학교 : 과정별 필수 과목 - 화법(4), 독서(4), 작문(6), 문법(4), 문학(8)

2) 중학교에서는 전체 3,468단위를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국어과가 476단위를 이수하게 되어 있어, 결국 국어과는 전체 과목 가운데 13.7%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국어과 관련 과목이 36단위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188단위에 비추어 볼 때 19.2%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중학교는 제시된 모든 단위가 필수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고등학교는 전체 188단위가 모두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전체 교과들 속에서 국어과의 위상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3) (2)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단위 수를 나타낸다. 중학교는 45분 수업이 1단위가 되며, 고등학교는 50분씩 17주를 이수해야 1단위가 된다. 따라서 (2)에 제시된 단위 숫자는 차원이 다르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 과목은 필수인 데 비해, 고등학교 과정별 필수 과목은 실제로는 학교마다 선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2)의 수치만 가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과의 단위 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2ㄱ, ㄴ)에 제시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 과목은 모든 학습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공통 필수 과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문법 영역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등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단위 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결국 교육 과정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위상은 개별 영역들의 단위 수가 제시되어 있는 고등학교 과정별 필수 과목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2ㄷ)에 따르면, 문법 영역은 전체 26단위 가운데 4단위를 차지하고 있어 15.4%에 해당하는 몫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 국어 사용 기능 영역에 해당하는 화법, 독서, 작문은 모두 합해 14단위(53.9%)에 달하고 있다. 문학은 8단위(30.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문학이 읽기 등 다른 영역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교육 과정의 단위 수를 통해 본 문법 영역의 위상은, 수치상으로 볼 때 15.4%에 해당하는 미미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⁴⁾ 더구나, 개별 고등학교에서는, 인문·사회 과정이라 하더라도, 과정별 필수 과목들 가운데 2, 3개의 과목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학교 문법이 교육되는 비율은 더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교과서에서의 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국가 수준의 지침은 교과서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문법 영역이 다른 영역의 기초적 지식 영역으로, 그리고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 교과서에서, 특히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강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 문법 교육 영역이 교과서에서 어떤 위치를 차

4) 앞으로 시행될 제7차 교육 과정(중등학교)에서의 문법 영역의 위상은 이보다 더 약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심화 선택 과목이라 하여 제시되어 있는 고등학교 국어과 과목들의 단위 수가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으로 되어 있어, 결국 문법의 위상은 10%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종전의 ‘언어’라는 영역 명칭이 ‘국어 지식’으로 바뀌기도 한다.

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학교 문법 내용들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 가중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3.1. 중학교 국어 과목은 학년별 전·후기 1권씩 전체 6권의 교과서가 있고, 고등학교 국어 과목은 공통 필수 과목으로 ‘국어(상·하)’ 2권의 교과서가 있다.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과 여섯 영역들의 분포 상황을 통해서 문법 영역의 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계	비고
쪽 수	128 / 9.3	434 / 31.4	160 / 11.6	188 / 13.6	470 / 34.1	1380쪽 / 100%	저자 및 출처 쪽 수는 생략
수업 시수	56 / 12.5	122 / 27.2	60 / 13.4	71 / 15.9	139 / 31.0	448시간 /100%	부록은 수업 시수 속에 포함 안 됨.

(3) 중학교 국어 교과서(‘국어’)의 영역별 분포 상황

(3)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각 영역별 분포 상황인데, 다른 영역은 모두 독자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말하기와 듣기 영역은 분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합 제시되어 있다. 단순히, 교과서의 쪽 수를 비교했을 때는 언어(문법) 영역이 13.6%였으나, 수업 시수를 비교했을 때는 15.9%로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실 쪽 수는 개별 영역의 중요도를 나타내기에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문학이나 읽기 영역은 그 성격상 차지하는 쪽 수가 많을 것이며, 문법 영역은 쪽 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영역의 중요도는 실제로 수업에 배당된 시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시수 차원에서 볼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국어 사용 기능 영역은 53.1%(238시간)이고, 문학 영역은 31.0%(139시간)인데 비하여, 언어(문법) 영역은 15.9%(71시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 국어과 수업에서 문법 영역의 위상이 낮은 상태임을 보여 준다.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계	비고
쪽 수	32 / 4.8	168 / 25.3	32 / 4.8	124 / 18.7	308 / 46.4	664쪽 / 100%	부록 203쪽 생략 /일러두기, 차례, 판권은 포함되지 않음.
수업 시수	16 / 9.5	48 / 28.6	16 / 9.5	36 / 21.4	52 / 31.0	168시간 / 100%	부록은 수업 시수 속에 포함 안 됨.

(4)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국어(상·하)’의 각 영역 분포 상황⁵⁾)

한편, (4)에서 보는 것처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중학교에 비해 문법 영역의 비율이 조금 높다. 특히 수업 시수가 21.4%나 되고, 쪽 수에서도 18.7%가 된다.

수업 시수 차원에서 볼 때, 국어 사용 기능 영역 전체가 47.6%(80시간)이고, 문학 영역이 31.0%(52시간)임에 비해 문법 영역이 21.4%(36시간)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의 단위 수 비율에 있어서 문법 영역이 15.4%였음을 상기해 본다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의 21.4%는 실제 학교 문법 교육에 있어서 문법 영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공통 필수 과목인 국어 교과서 안에 문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학교에서는 15.9%, 고등학교에서는 21.4%라는 사실은 학령에 따라 학교 문법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3.2. 학교 문법 교육이 학령에 따라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문법 영역이 내용 교과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문학 영역도 어느 정도의 내용 교과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문법 영역은 국어의 체계적 지식을 탐구하고

5) 도표 (4)에 제시된 수업 시수는 국어(상, 하) 교과서의 ‘일러두기’를 참고한 것이다. 국어(상) 교과서에는 대단원 당 10시간씩 배당되어 있으나, 국어(하) 교과서에는 각 대단원 당 10~11시간이 배당되고 있어서 각 영역 당 정확한 수업 시수는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언어 영역과 문학 영역이 내용 교과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 두 영역의 해당 대단원에 11시간을 배당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참고로, 대단원 당 배당된 10시간 또는 10~11시간 속에는 각 대단원 말미에 있는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의 수업 시수 2시간씩이 포함되어 있다.

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식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학교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간 학령에 따른 내용 차이는 어떠한지 교과서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한다.

		언어 일반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화용론	옛말	국어 생활	북한어	합계	비 고
중학교 국어	쪽수	없음	18 /9.6	38 /20.2	62 /33.0	24 /12.8	14 /7.5	11 /5.8	10 /5.3	11 /5.8	188쪽 /100%	언어 일반 내용은 읽기 영역 속에 22쪽이나 들어가 있음.
	수업 시수		7 /9.9	15 /21.1	26 /36.6	8 /11.3	5 /7.0	3 /4.3	4 /5.6	3 /4.2	71시간 /100%	
고등학교 국어	쪽수	30 /24.2	12 /9.7	8 /6.4	7 /5.6	8 /6.4	9 /7.3	28 /22.6	10 /8.1	12 /9.7	124쪽 /100%	국어 생활 내용은 부록에 61 쪽이나 있음.
	수업 시수	9.0 /25.0	3.0 /8.3	2.0 /5.6	1.7 /4.7	2.4 /6.7	2.3 /6.4	9.0 /25.0	3.0 /8.3	3.6 /10.0	36시간 /100%	
고등학교 문법	쪽수	18 /7.8	22 /9.6	26 /11.3	36 /15.7	18 /7.8	22 /9.6	32 /13.9	56 /24.3	없음	230쪽 /100%	수업 시수를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록(옛 말)도 통계 자료로 포함시킴.
	수업 시수	확인 할 수 없음										

(5) 학교 문법 내용의 분야별 분포 상황

(5)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언어(문법) 영역 내용들의 쪽 수 및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고등학교 문법』에 제시된 내용들은 쪽 수로는 확인할 수 있으나 수업 시수는 확인할 길이 없어 빈칸으로 놓아 두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언어 일반(국어 특질) 내용을 제시한 부분이 읽기 영역에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 부호법과 띄어쓰기 내용이 부록에 조금 들어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과 같은 국어 생활 내용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 전체 문법 영역의 분야별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통해서 개략적인 몇 가지 문법 영역의 분야별 중요도 및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세 가지 종류의 교과서 가운데, 문법 영역의 분야별 중요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학교 문법에서는 어문 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어 생활 부분(24.3%)을 가장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

서에서도 비록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양을 국어 생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학교에서는 국어 생활 분야(어문 규정 포함)가 강조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둘째, 순수 문법 영역 가운데 문장론 분야가 제일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이를 특히 잘 확인할 수 있다(36.6%). 본격적인 문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문법』에서도 문장론 분야가 음운론, 화용론 등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15.7%)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문법 영역의 각 분야들이 배열 정도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형태론이나 문장론 내용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 영역별 분포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중세 국어 문법이나 국어사를 다룬 옛말 분야는 중학교 4.3%, 고등학교 25.0%, 『고등학교 문법』 13.9%(부록)를 차지하고 있어, 학령에 따른 교수·학습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현대 국어에 비해 옛말이 조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법 영역이 언어(국어) 사용 기능 영역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현재의 기능 중심의 국어 교육관을 반영한다.

넷째, 북한 지역의 언어를 다루고 있는 분야는 국어 교과서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고등 국어 문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어 교과서에는 남·북한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들어가 있다고 해석되며, 문법 교과서에는 북한 지역 언어도 결국 같은 나라 속의 언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학교 문법 영역의 각 분야별 중요도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듯하다. 『고등학교 문법』에서 수업 시수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⁶⁾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언어 일반 분야 중 국어 특질 속에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여하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재 중등학

6) 대개 수업 시수는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는 교사용 지도서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도 교사용 지도서가 없긴 하지만, 책의 일러두기 부분에 수업 시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 학교 문법 영역에서는 문장론 분야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국어 생활 분야를 강조하고 있음은 특징적이다.

4. 『고등학교 문법』 과목의 선택 및 수업 현황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교육의 현황은 국가의 국어 정책 차원에서 학교 문법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황은 어떠한지를 개략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중등학교에서 ‘국어’ 과목은 필수적으로 교수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은 그대로 교육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인 『고등학교 문법』은 개별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택 및 교수되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 구체적인 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이 드러날 것이다.

선택 과목인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가운데, 과연 개별 학교에서는 문법 과목을 얼마나 선택하고 있을까. 공통적으로 교수되고 있는 국어 과목보다 이들 선택 과목의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학교 문법 교육의 실제적 현황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개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선택하고 있는 과목의 분포를 알아봄으로써, 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4.1. 먼저, 문법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개별 고등학교의 숫자를 국어과의 다른 과정별 과목들과 함께 제시해 보도록 한다.

		문학	작문	독서	화법	문법	합계
인문·사회 과정	학교 수	185	183	159	16	96	639개
	백분률	29.0	28.6	24.9	2.5	15.0	100%
자연 과정	학교 수	185	162	112	1	15	475개
	백분률	38.9	34.1	23.6	0.2	3.2	100%

(6) 고등학교 국어과 과정별 필수 과목의 학교수별 분포 현황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6)은 서울시 교육청 산하 185개 개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과정별 필수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현황을 학교 수로 표시해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법 과목은 인문·사회 과정에서 선택하는데, (6)에서는 문학, 작문, 독서, 화법 등 다른 과목들과 견주어 본 백분율이 15.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문학(29.0%)이나 작문(28.6%), 독서(24.9%)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치이다. 화법 과목이 매우 낮은 수치(2.51%)를 나타내는 것은 이 과목이 아직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실제로 이를 가르칠 교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문법 과목은 학문적 연륜도 매우 깊고, 이를 지도할 교사도 많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선택 비율을 보이고 있다. 크게 3대별해서 보면, 국어 사용 기능 관련 과목을 전체를 합해서 56.0%, 문학이 29.0%, 문법이 15%가 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인문·사회 과정일 경우, 과정별 필수 과목 5개 가운데 문학은 모든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고, 문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2, 3개 정도 가르치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문학, 작문, 독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문법이나 화법 과목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인문계 고등학교 자연 과정의 경우에도 문학 과목은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게 되어 있으나, 다른 과목은 개별 고등학교 재량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문학 과목(38.9%)을 필수적으로 교수하고 있으며, 작문 과목(34.1%)이나 독서 과목(23.6%)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화법 과목(0.2%)은 물론이고, 문법 과목(3.2%)도 아주 낮은 선택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4.2. (6)에 나타난 과정별 필수 과목에 대한 학교 숫자 및 그 비율은 단순히 몇 개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통계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이들 다섯 과목들에 할애하는 단위 수가 모두 다르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어떤 고등학교에서 문법 과목을 선택했다 안 했더라는 피상적인 것보다는 선택한 과목에 몇 단위를 부여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다. 다음에 제시된 (7)은 바로 이러한 통계치를 보여 준다.

		문학	작문	독서	화법	문법	합계
인문·사회 과정	단위 수	1736	1171	737	68	394	4,106단위
	백분률	42.3	28.5	17.9	1.7	9.6	100%
자연 과정	단위 수	1555	858	476	4	62	2,955단위
	백분률	52.6	29.1	16.1	0.1	2.1	100%

(7) 고등학교 국어과 과정별 필수 과목의 단위수별 분포 현황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 과정에 따르면, 본래 문학 과목은 단위 수가 8단위로 제일 높고, 작문 과목은 6단위로 그 다음이며, 나머지 독서, 문법, 화법 과목은 각 4단위씩이다. (7)에 제시된 단위수별 분포 현황과 (6)의 학교수별 분포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따라서는 예컨대 독서나 문법 과목의 경우, 기준 단위인 4단위가 아닌 6단위를 책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작문 과목을 6단위가 아닌 4단위를 책정하기도 하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결국 개별 고등학교에서 배당하고 있는 단위수별 분포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을 통해 볼 때, 문법 과목이 단위 수 비율에 있어서 9.6%밖에 되지 않는다. 이 수치는 (6)의 학교수별 분포 15.0%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이다. 이는 문법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학교 수도 적지만 실제 수업에 필요한 단위 수는 그보다도 미미함을 보여 준다. 문학 과목의 수치(42.3%)가 (6)에서보다 훨씬 높은 것(29.0%) 역시 단위 수가 8단위나 되기 때문이다. 한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도, 국어 사용 기능 관련 과목 47.7%, 문학 42.3%에 비하여 문법은 9.6%로 매우 낮은 비율을 갖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인문·사회 과정 뿐만이 아니라 자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7)에서 자연 과정의 문법 과목 단위 수 백분률(2.1%)이 매우 낮은 것과 문학 과목 백분률(52.6%)이 (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바로 개

별 학교에서 할당하고 있는 각 과목의 단위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컨대,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과정별 필수 과목들 가운데 문법 과목의 교육 현황은 국어과의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 볼 때 9.6%밖에 안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교육 과정에서의 15.4%,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의 15.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의 21.4%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는 곧 실제 학교 문법 교육의 위상이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보다도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4.3. 다른 영역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9.6%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한 현행 학교 문법 교육의 중요도는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그 수치가 더 떨어진다.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지만, 현행 입시 위주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입시 준비 상황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출제 대상이 되지 않는 문법 과목을 교실 뒤로 밀어냈다. 즉 시간표에는 문법 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시간에 문학 같은 다른 영역 수업을 한다거나,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을 수업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앞의 통계 9.6%라는 수치도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사회 과정에 해당할 뿐, 자연 과정에서는 2.1%로 떨어져 거의 그 흔적밖에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문법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업계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진도도 다 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법 과목 선택은 생각할 수도 없고,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 내용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5. 맺음말 : 문제점의 극복 방안

지금까지 교육 과정, 교과서, 실제 수업을 통하여 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교육 과정이나 국어 교과서에서는 15%~21%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10%도 안 되는 빈약한 문법 교육의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 문법 교육을 정상화 또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말·우리글 학습의 필요성을 당연히 인정하는 입장에서 현행 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문법 교육이 민족 차원의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국가 차원의 교육 과정 속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학교 문법 교육을 모든 학습자들에게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말·우리글에 대한 교육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은 입시 제도에서 문법 내용이 반드시 출제되어야 한다. 현행 입시 위주의 교실 수업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는 문법이 교수·학습될 리 만무하다. 교육 과정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문법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문법 내용이 입시 문제로 출제되지 않는 한, 학교 문법 교육은 정상화되기 어렵다. 출제에 있어서의 혼란 때문에 학교 문법이 통일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통일되어 있는 문법 내용을 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통 필수 과목인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는 문법 내용이 의무적으로 교수·학습되고 있듯이, 국가 차원의 시험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셋째, 학교 문법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문법 교수법과 평가론이 더욱 연구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 과정에 제시된 탐구 수업을 구호로 외치기보다는 이론적 및 실천적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올바른 학교 문법 교육에 대한 정당한 문법 수업의 평가 방법의 개발도 시급하다. 비록 현재 학교 문법 교육이 절름발이 상태라고 하더라도 교수에 대한 평가는 당연할 것이며, 바람직한 학교 문법 교육을 지향한다면 더더구나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1988). 「학교 문법의 전통과 통일화 문제」. 『선청어문』16·17.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 권재일(1995).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 지도 내용」. 『국어교육연구』2.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 출판부.
- 김민수(1986). 「학교 문법론」. 『서정범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집문당.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노명완(1988). 『국어교육론』. 한샘출판사.
- 박영목·한철우·윤희원(1996). 『국어교육학원론』. 교학사.
- 박영순(1998). 『한국어 문법 교육론』. 박이정.
- 어문연구회(1984). 「특집, 학교 문법과 교과서」. 『어문연구』42·43.
-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이관규(1999). 『학교 문법론』. 월인.
- 최영환(1992). 「국어교육에서 문법지도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2.